▣ 그림 여행

지네브라 벤치의 초상

(Portrait of Ginevra de' Benci c. 1474 - 1478)

레오나르도 다 빈치 (Leonardo da Vinci 1452 - 1519)
(목판에 유채 42 cm x 37 cm 워싱턴 DC 국립 미술관)

'지네브라의 초상' 은 워싱턴 DC 국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. 미국에서 유일하게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이다. 1967년에 국립 미술관이 5백만 불을 주고 구입했는데 그 당시 상상을 초월한 최고의 그림 가격이었다고 한다.

그림 속 소녀의 이름은 지네브라 데 벤치, 15세기 피렌체 귀족 가문의 딸이었다.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이 초상화를 그렸을 때, 그녀의 나이는 16세였고 막 약혼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. 지네브라는 학식과 교양을 겸비한 미인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당대 피렌체의 유명 시인들이 앞 다투어 그녀에게 시를 지어 헌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.

그림 속 지네브라의 눈동자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. '모나리자' 를 예감하게 하는 시선의 모호함이다. 그러나 희미하게 미소 짓는 모나리자와 달리 창백한 피부에 금발의 이 미녀는 그저 무표정하기만 하다. 그림 속 배경에는 아마도 고향 피렌체인 듯 한 풍경이 저 멀리 보이지만 그녀를 온통 둘러싸고 있는 것은 주니퍼 나무의 검푸른 그림자이다.

주니퍼 나무는 여성의 정숙함을 상징한다고 한다. 지네브라가 아름다운만큼 그녀의 정숙함이 그에 못지 않다는 것을 의미 했으리라. 또, '주니퍼' 를 이탈리아 어로 '지네프로' 라고 하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상기시켜주는 역할도 한다.

정숙하고 아름다운 지네브라. 깊게 팬 눈꺼풀을 반쯤 뜨고 알 수 없는 피안의 세계를 보고 있는 듯한 이 엄숙한 소녀의 얼굴은 주위를 뒤덮은 금녹색 주니퍼 나무의 그늘로 인해 달빛처럼 희게 빛난다. 이 신비한 모습과 분위기는 훗날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'모나리자' 속에서 완벽히 재현해 내었다.

오백 년의 세월과 바다를 건너 온 기나 긴 여행. 그러나 지네브라는 영원히 나이 들지 않는다. 멀리서 불어 오는 바람 사이로 주니퍼 나무 잎새가 고향의 언어로 그녀의 이름을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듯 하다.

《김동백》

일반 서비스

입주자에게 공동으로 서비스

- 매일 영양사가 만든 매일 균형잡힌 한식 건강식단 및 간식제공
- 매주 침구류 교체 및 매일 룸 청소와 세탁서비스
- 매달 다양한 주제의 교양 강좌
- 매일 다양한 레크레션 활동과 운동
- 치매 예방과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특별활동 클래스
- 24시간 간호사 대기(응급콜 응답)
- 정기적으로 의사 방문 및 진료 서비스

맞춤형 보조 서비스

입주자에게 선택적으로 서비스
(추가서비스 비용이 요구됩니다.)

- 샤워, 머리손질, 의복 입/탈복 등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
- 시간에 맞춰 처방약 관리
- 혈당, 혈압 등 정기적인 건강상태 검진
- 치매환자 특별케어 서비스(Momorty Care)
- 요실금 케어(Incontinence of bladder and bowel care)

FULLERTON VILLA
ASSISTED LIVING
플러튼빌라양로호텔
한국어 상담 (714)308-9800
(562)455-3457

홈 헬스●호스피스●양로보건센터 서비스●외출시 교통편 예약 대기 서비스

1인실 침실 모습

쾌적한 2층 식당

Tel. (714)992-5380 / Fax. (714)992-4489 / 2441 Orangethorpe Ave. Fullerton, CA 92833
e-mail: ocfullertonvilla@gmail.com / License #306004839 / TALK fullertonvilla